

[Weekly News Brief] Shinsung ENG 3rd quarter cumulative sales KRW 469.7 billion – November 10, 2022

[주간 뉴스브리프] 신성이엔지 3분기 누적매출 4697억원 외

- 이도윤
- 승인 2022.11.11 14:00

◆ 램리서치,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승인 획득

출처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http://www.thelec.kr>)



램리서치는 자사의 단기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가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SBTi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세계 자원 연구소(WRI) 등의 연합기구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가이드를 지원하고 감축 목표를 검증한다. 미국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중 이 승인을 받은 건 램리서치가 처음이다. 한편 램리서치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와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반도체 기후 컨소시엄(Semiconductor Climate Consortium)’ 창립멤버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 EV그룹, 차세대 EVG150 레지스트 처리 플랫폼 출시

MEMS 및 반도체 시장용 웨이퍼 본딩 및 리소그래피 장비 업체인 EV Group(EVG)은 차세대 200mm

EVG150 자동화 레지스트 처리 시스템을 출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EVG150은 이전 세대 플랫폼에 비해 최대 80% 높은 생산성, 우수한 범용성 등이 특징이다. 첨단 패키징, MEMS, RF, 3D 센싱, 전력 반도체, 포토닉스를 비롯한 다양한 디바이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다. EVG 측은 세계적인 EBS(electronic based system) 연구 센터인 실리콘 오스트리아 랩스가 차세대 EVG150 시스템의 첫 번째 고객이라고 설명했다.

◆ 신성이엔지, 3분기 누적매출 4697억원...전년동기 대비 65% 증가

신성이엔지는 지난 3분기 연결기준으로 누적 매출 4697억원을 달성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9억원, 10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3분기 매출은 15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78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사업별로는 클린환경(CE) 사업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707억원, 1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252% 늘었다. CE사업은 공기정화설비 관련 사업이다. 지난 3분기까지 신성이엔지 신규 수주액은 4307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주 잔고는 3분기 말 기준 3123억원으로 내년까지 탄탄한 매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재생에너지(RE) 사업부문 매출은 9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4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 인텔, 슈퍼컴퓨팅용 CPU 및 GPU 공개

인텔 제논 CPU

인텔은 슈퍼컴퓨팅(HPC) 및 인공지능(AI) 워크로드용 제논 CPU 맥스시리즈 (코드명 사파이어 래피즈HBM), 데이터센터 GPU 맥스시리즈 (코드명 폰테 베키오) 등 신제품을 지난 10일 선포했다. 이들 신제품은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오로라 슈퍼컴퓨터에 탑재될 예정이다. 제논 CPU 맥스 시리즈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갖춘 x86기반 프로세서다. 코드 변경 없이 많은 슈퍼 컴퓨팅 워크로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 GPU 맥스 시리즈는 최대 128GB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갖춘 47-타일 패키지에 1000억개 이상 트랜지스터를 탑재했다. 이번 신제품은 내년 1월 정식 출시 예정이다.

◆ 원익아이피에스, 2030 비전쉐어링 행사 개최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원익아이피에스는 최근 경기도 평택 본사에서 2030비전쉐어링 행사를 개최했다. '2030 비전쉐어링 행사'는 올해 전 사업장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한 시설투자 와 본사 리모델링을 기념해 열렸다. 원익아이피에스는 '좋은 회사(Good Company)'를 목표로 선정한 2030년

비전의 비즈니스와 조직문화 개선 목표를 이날 공유했다. 이날 이현덕 대표는 2030년 조직문화의 비전과 매출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공유했고 조직문화를 위해 직원 만족도 지수를 높여 '임직원이 행복한, 일하기 좋은 회사'로의 발전과 '사회가 인정하는 신뢰받는 회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 코아시아, 3분기 매출 983억원 달성

코아시아는 지난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983억원, 영업손실 113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3508억원, 영업손실은 164억원이다. 회사 측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격적 채용 및 선제적 투자를 진행하며 영업비용이 증가했다"며 "하반기 프로젝트 연속 수주는 핵심 인력 양성을 통해 자체 엔지니어를 확보한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스마트폰 카메라렌즈모듈 사업부문 실적 부진도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며 "모듈·렌즈 사업부문 수직계열화, 고부가 제품 확대 등을 바탕으로 향후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전자부품 분야 전문미디어 디일렉》

출처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http://www.thelec.kr>)

<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18642>